

보도시점 2025. 9. 18.(목) 11:00

배포

2025. 9. 18.(목) 09:00

현장과의 소통으로 소 질병 연구체계 한층 강화

- 정부와 민·관·학 소 질병 전문가가 협력하는 ‘소 질병 분야별 협의회’ 개최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 이하 검역본부)는 최근 국내 소 질병 발생현황과 현안사항을 공유하고 새로운 연구사업을 찾아내기 위해 ‘소 질병 분야별 협의회’를 9월 17일 영상회의로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는 생산자단체, 학계, 산업체, 농식품부 및 지자체 방역기관 등 총 23명의 각계 내·외부 전문가가 참석했으며, 현장에서 해결이 필요한 소 질병 현안의 공유, 소 질병 관리 및 예방방안, 향후 관련된 연구방향 등에 대한 다각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다.

특히, 인수공통전염병 예방을 위해 농가 관리가 요구되는 쿼열에 대한 최근 발생 현황과 시사점에 대해 발표가 있었다. 그리고 최근 기후변화, 사육환경 등과 관련하여 현장에서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는 소 질병에 대한 진단 및 관리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개선이 필요한 소 질병 진단법 및 예방법 등과 관련된 새로운 연구과제 발굴을 위해 논의했으며, 현장 적용성의 중요성도 공유했다.

검역본부 강동윤 동식물위생연구부장은 “이번 협의회는 현장에서 중요한 질병 상황과 각계 전문가 의견을 공유하는 소중한 시간이었으며, 현장 애로사항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향후 연구과제 및 방역사업을 추진할 때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농림축산검역본부 세균질병과	책임자	과 장	김재명 (054-912-0722)
		담당자	연구관	정옥미 (054-912-0723)